미국 독립기념일 맞춰 도발…심리적 '레드라인' 시험

북, ICBM 발사 한반도 격랑

주변국 미사일 군비경쟁 … 동북아 안보 중대 변수

우리정부 주도 대화국면 조성 당분간 어려울 듯

북한이 미국의 심리적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일컬어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첫 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격랑 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4일) 전야인 한국 시각 4일 오전 쏘아올린 미사일이 북한의 주장대로 ICBM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다. 하지만, 비행고도 2500km 이상에 900km 이상의 비행거리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만으로도 이번 발사가 북한 ICBM 개발의 중대 이정표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北, 6번째 ICBM 보유국 되나=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면 미국·러시아·중국·인도·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6번째 ICBM 보유 국가로 기록된다. 북한은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운반하는 능력을 갖추는 핵무기체계를 완성하고자 ICBM 개발에 전력을 쏟아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가 930여㎞라고 밝혔고 정부 소식통은 최고고도가 2500㎞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우리 군은 사거리 5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ICBM으로 분류한다. 또 사거리가 8000㎞인 ICBM을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쏘면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뿐 아니라 알래스카주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사거리가 8200㎞만 돼도 미국 서부 연안 워싱턴주의 대도시 시애틀에 닿는다.

◇北, 첫 ICBM 발사 택일 배경은=북한이 발사 시점을 이날로 정한 것은 한미 양국은 물론 북한 내부를 겨냥한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이다. 일단 이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하루 전이다. 북한은 지난 2006년에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7발의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쏘아올렸다. 또 이날은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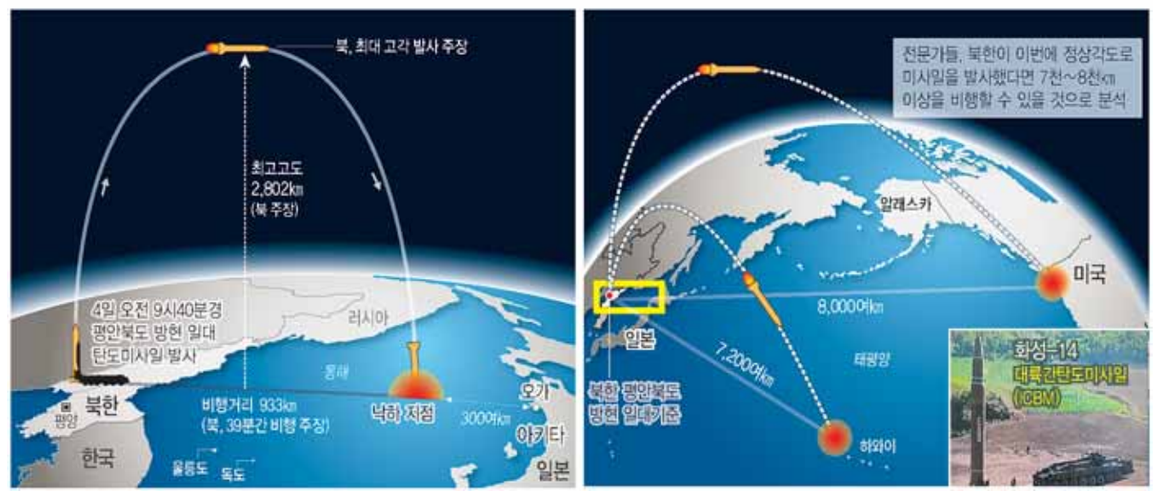
◇한반도 정세 격랑=북한이 ICBM을 보유한 국가가 되면 미국과 일본이 지·해상 요격체계를 증강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한반도 주변국 미사일 전력 군비경쟁 등 동북아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ICBM의 문턱에 올라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우리 정부 주도로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것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결국, 북한은 한미가 전격적으로 조건없는 대화 제의를 하지 않는 한, 추가 도발을 이어나갈 공산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국 주도의 고강도 대북 제재와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억지력 과시 등이 이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예측하기 힘든 긴장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날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간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성공" 발표



"광주는 민주주의·평화통일의 '바위' 올리려는 시시포스"

박영선 의원 광주 방문

양동시장 국밥집에서

시민들과 '대선 감사 번개미팅'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4일 "광주는 '대한민국'이라는 산의 정상에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라는 바위를 올리려는 시시포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경제 현안인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히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찾았던 양동시장의 한 국밥집에서 시민과의 '대선 감사 번개미팅'을 했다. 지난 대선 때 이틀에 한 번꼴로 광주를 찾았다고 소개한 박 의원은 "처음 내려왔을 때와 마지막 방문했을 때 민심의 변화 속도를 피부로,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선거였다"면서 "지난 5·18 기념식 때 뭉클함을 느끼고 처음으로 진정 어린 5·18 행사였다고 생각하고 서울로 갔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키고 10년이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 10년간 어떻게 후퇴했는지 눈으로 봤다"며 "역주행을 막도록 광주가 버텨줘야 한다. 다시는 민주주의가 후퇴해선 안 되며, 광주 정신과 호남의 힘으로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오른쪽에서 두번째) 의원이 4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한 국밥집에서 광주·전남 당원 및 지지자 30여명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찾았던 국밥집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활동에 대한 감사 인사 자리를 마련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 의원은 민주당 당원·지지자 30여명, 시장 상인들과 국밥을 함께 먹으며 대선 지원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북구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서 시민단체인 평화포럼으로부터 지난 대선 활동 공로를 인정하는 감사패를 받고 '문재인 정부와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을 통해 박 의원은 "광주와 호남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희생을 반복해왔다"면서 "호남에 근거지를 가진 정치인과 경제인 등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키울 때 호남에 힘이 생기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의 금호타이어 매각 질문에 "문 대통령은 약속한 것을 항상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이 있을 것이다"면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금호타이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2년 만의 호남출신 총장…강단 있는 '특수통'

문무일 검찰총장 지명 배경과 과제

광주일고 출신…조직 안정 속 검찰 개혁 추진 적임자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은 검찰 내의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김종빈 전 총장(2005년 4월 취임) 이후 12년여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안 출신이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문 후보자는 추진력과 치밀함을 갖춘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범죄 첩보와 비위를 직접 포착해 인지 수사하는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해 현직 검사 가운데 최고의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현직 고위간부라는 점에서 검찰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면서 안정감 있게 조직을 이끄는 한편으로 개혁 과제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재직 중이던 1994년 '지존파 사건' 당시 경찰의 허술한 초동수사에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지휘해 살해의 단서를 밝혀낸 일화는 문 후보자의 치밀한 일 처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서울서부지검장 시절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수사를 지휘해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특히 특별수사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을 두루 경험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 특별수사지원과장에서 시작해 과학수사2담당관을 거쳐 선임 과장인 중수1과장을 지냈고,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와 전국 특수부장 가운데 최선임인 특수1부장을 역임했다.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팀에 파견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 초반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됐다는 점에서 각종 개혁 과제를 해결하고 부정부패 수사라는 본연의 업무도 성실히 처리해내는 중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하순께 단행될 대규모 정기 간부 인사가 문 총장 후보자의 조직 안착 여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반년 넘게 지연된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따라서 문 후보자가 동요하는 검찰 조직을 다독거려 조직을 시급히 안정시켜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적 쇄신 이후 문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마주할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구체적인 검찰개혁 과제들이 즐비하다. 이와 함께 검찰 본연의 임무인 부정부패 수사에서도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다행히 문 후보자 본인이 특별수사로 잔뼈가 굵은 대표적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프로필

▲ 광주(56·사법연수원 18기) ▲ 광주제일고 ▲ 고려대 법학과 ▲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 대검 중수1과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수원지검 2차장검사 ▲ 인천지검 1차장검사 ▲ 부산지검 1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서울서부지검장 ▲ 대전지검장 ▲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 부산고검장

광주일보 65 since 1952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용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품목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미니어처 등
	190㎖ 이상 400㎖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 이상 1,000㎖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등
	1,000㎖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정종 등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